

주간 전남 농업

VOL. 256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10월 다섯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깔짚 우사·퇴비사 관리 기술로 퇴비 질 높여요”
정책동향 및 홍보 강진 홍여신 대표, 전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 쾌거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나주시, 화상벌레 이렇게 대비 하세요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0.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남농기원, 노동력 절감 벼 소식재배 현장평가회 개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12도, 최고기온: 17~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 ▶ 무
- ▶ 당근
- ▶ 양배추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5

- ▶ 영암 신고배 러시아 수출길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전남농기원, 노동력 절감 벼 소식재배 현장평가회 개최
- ▶ 노지 작물도 ‘인공지능’ 활용한 물 관리 시대
- ▶ 비바람에 강한 우리 콩 ‘아람’, 기계수확도 돼요
- ▶ “갈짚 우사·퇴비사 관리 기술로 퇴비 질 높여요”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0

- ▶ 강진 홍여신 대표, 전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 쾌거
-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AI 예찰검사 강화
-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 ▶ 전남도, 올해 쌀 등 농업직불금 2천298억 원
- ▶ 국제농업박람회, 농산물 국내시장 판로 확대 톡톡
- ▶ 국제농업박람회서 원예농산물 구매약정
- ▶ 전국 배(梨) 명인 “잘 키운 우리 배 사랑해 주세요”
- ▶ 우리 맥류·잡곡으로 만든 참신한 빵·과자 한자리에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8

- ▶ 나주시, 화상벌레 이렇게 대비 하세요
- ▶ 담양군,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시식회
- ▶ 담양군, 와우딸기작목회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최우수단지 선정

- ▶ 담양군,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 건립 ‘박차’
- ▶ 고흥군, 롯데슈퍼와 농수축산물 공동 유통마케팅 협약
- ▶ 화순군, 농민수당 본격 시행...올해 30만 원 지급
- ▶ 강진군, 수확 후 남은 볏짚 토양으로 환원 당부!
- ▶ 강진군, 맥류 적기파종으로 월동 준비 하세요!
- ▶ 해남군, “맛있는 김장의 비결은 명품 해남배추”
- ▶ 무안군, 단감 신제품 현장 설명회 가져
- ▶ 장성군, ‘황금사과’, 첫 수확부터 관심 집중
- ▶ 장성군, 약용작물 소득화 ‘본격 추진’
- ▶ 완도군, 해풍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참다래 수확

8. 해외 농업정보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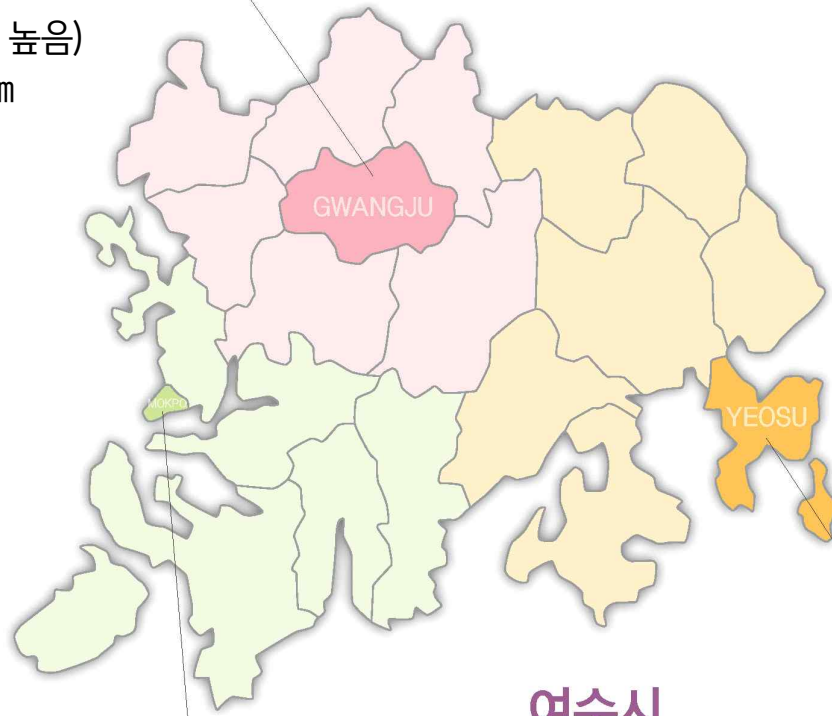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0.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9. 농식품 빅데이터(가격)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6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 ▶ 농촌진흥청 농사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4.9℃
(평년대비 2.5℃ 높음)
- 최고기온 : 19.9℃
(평년대비 1.7℃ 높음)
- 최저기온 : 9.9℃
(평년대비 2.4℃ 높음)
- 강 수 량 : 1.9mm



목포시

- 평균기온 : 15.9℃
(평년대비 2.4℃ 높음)
- 최고기온 : 19.4℃
(평년대비 0.8℃ 높음)
- 최저기온 : 12.3℃
(평년대비 2.9℃ 높음)
- 강 수 량 : 2.1mm

여수시

- 평균기온 : 15.7℃
(평년대비 1.6℃ 높음)
- 최고기온 : 20.4℃
(평년대비 6.5℃ 높음)
- 최저기온 : 11.0℃
(평년대비 3.9℃ 낮음)
- 강 수 량 : 2.4mm

10월 배추·무 출하량 평년보다 감소 전망



가을작형 출하량 **감소**

고랭지작형 출하량 **증가**

차기작형 생산 동향 [평년 대비]

가을작형 생산량



겨울작형 재배(의향)면적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 생산전망 : 가을배추 생산량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

- 2019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약세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6% 감소한 12,413ha로 예상된다.
- 가을배추 단수는 정식(9월 상순) 이후 잦은 비와 태풍 등으로 전반적인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씩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 하순부터 출하될 전남지역의 경우 태풍 피해로 정식 시기가 지연되었고, 병해도 증가하여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 내외 감소한 127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0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5,740원) 및 평년(5,300원)보다 높은 10,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순별 가격은 가을배추 문격 출하로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상순보다 중·하순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가격은 전년(5,070원) 및 평년(4,86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

🌿 생산전망 : 가을무 생산량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

- 2019년 가을무 재배면적(태풍 피해면적 반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17%, 13% 감소한 5,032ha로 조사되었다.
- 가을무 작황은 9월 상순 태풍 ‘링링’과 9월 하순 태풍 ‘타파’에 따른 침수, 뿌리 고사등으로 부진하고, 10월 초에도 태풍 발생이 예보되어 있어 생육과정상 뿌리혹병, 무름병 등의 병해충 발생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가을 무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9%씩 감소한 38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0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2,140원) 및 평년(9,700원)보다 높은 16,0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한편, 10월 초 태풍 발생으로 차기작형에 대한 작황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가격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 11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낮았던 전년(6,130원)보다 높고, 평년(8,070원)보다도 상승할 전망이다.



당근

❖ 생산전망 : 고랭지당근 생산량 전년 및 평년보다 증가

- 2019년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0%, 7% 증가한 218ha로 추정된다.
- 고랭지당근 생육기(9월 상·중순) 집중호우로 9월 상순부터 주 출하된 평창(진부면)과 홍천지역의 당근에서 무름병, 터짐 현상 등이 증가하여 작황이 평년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고랭지당근 전체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3%, 7% 많은 4천 7백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0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10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56,050원)과 평년(39,660원)보다 낮은 32,0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전년(43,680원) 및 평년(28,8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배추

❖ 생산전망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전년 및 평년보다 증가

- 2019년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2% 증가한 1,864ha로 추정된다.
- 생육기(9월 상·중순)집중호우로 9~10월 주 출하되는 일부 고랭지양배추에 구 터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작황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고랭지양배추 전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3%, 16% 증가한 8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0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10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8,590원)과 평년(6,810원)보다 낮은 4,500원/8kg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전년(5,490원)과 평년(4,830원)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10. 28.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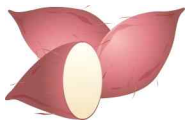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0kg	47,300	46,000	↓ 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310	49,600	38,387	↑ 23.2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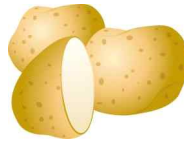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35kg	196,200	196,200	↑ 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800	187,200	156,200	↑ 25.6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kg	25,200	26,400	↓ 2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450	33,250	23,987	↑ 5.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0kg	20,100	19,600	↓ 5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900	42,450	30,397	↓ 33.9

채소류

배추(가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kg	12,200	14,7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	5,780	↑ 111.1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8kg	7,500	6,900	↓ 15.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00	8,900	6,922	↑ 8.4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0개	35,667	47,667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333	36,333	37,726	↓ 5.5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0개	16,000	20,200	↓ 2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50	20,650	16,480	↓ 2.9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30kg	432,000	430,000	↓ 2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5,000	606,000	481,600	↓ 10.3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kg	51,600	47,000	↑ 2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650	40,450	38,037	↑ 35.7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3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30,000	130,000	↓ 30.8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0kg	10,700	10,400	↓ 2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250	13,650	19,383	↓ 44.8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0kg	60,200	59,200	↓ 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600	61,200	40,863	↑ 47.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kg	1,800	1,940	↓ 1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40	2,025	1,774	↑ 1.5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5kg	21,400	25,400	↓ 4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350	36,400	27,073	↓ 21.0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개	14,000	14,400	↓ 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850	15,300	9,707	↑ 44.2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kg	27,800	28,200	↓ 2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400	36,400	26,917	↑ 3.3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5kg	19,200	19,400	↓ 2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800	25,100	19,137	↑ 0.3

과일류

사과(홍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kg	-	30,6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700	-	32,475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5kg	35,800	38,800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250	37,650	35,577	↑ 0.6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kg	41,600	41,6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00	42,000	42,653	↓ 2.5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0g	9,156	9,003	↑ 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771	8,449	8,009	↑ 14.3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kg	5,398	5,410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07	5,207	5,391	↑ 0.1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30kg	492,000	492,0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0,100	497,200	511,867	↓ 3.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kg	14,800	14,600	↑ 2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900	11,750	11,777	↑ 25.7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2kg	8,100	8,200	↑ 1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200	7,150	7,783	↑ 4.1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00g	1,772	1,793	↓ 8.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71	1,944	1,900	↓ 6.7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30개	5,498	5,512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47	5,304	5,655	↓ 2.8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8)	1주일전 (10/21)	전년대비	
1L	2,613	2,615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5	2,621	2,547	↑	2.6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0. 28.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64	5,658	5,792	↑ 0.1	↓ 2.2
거세	6,726	7,007	6,680	↓ 4.0	↑ 0.7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08	3,280	3,203	↓ 2.2	↑ 0.2
수	4,004	4,017	3,957	↓ 0.3	↑ 1.2

육우(천원/60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3,315	3,3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	↓ 12.4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401	39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5	↑ 35.5	

돼지(천원/11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78	28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5	↓ 21.9	

육계(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1,013	1,34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4.6	↓ 25.0	

계란(원/특란10개)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1,193	1,21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6	↑ 22.0	

오리(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400	2,4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4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영암 신고배 러시아 수출길

- 5만 달러 상당...전남도, 다양한 농수산물 확대 노력키로 -

- 영암 신고배가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전라남도는 전남 신선농산물 수출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에버팜(대표 이나미)은 이날 신북농협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5만 달러 상당의 신고배를 출하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수출은 지난 4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주)에버팜이 참여한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러시아 엠케이엠(대표 알담 무함마드)에 신고배를 소개하면서 비롯됐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제농업박람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협상해 마침내 수출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 신고배는 담황갈색을 띄며, 식감이 좋고 과즙이 많아 맛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높아 수출에 용이하다.
-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배 수출은 전남의 맛 좋고 품질 좋은 우수 농수산물을 러시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배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남의 농수산물이 러시아로 수출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연계해 동남아,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추진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농기원, 노동력 절감 벼 소식재배 현장평가회 개최

- 모 적게 심어도 수량은 같아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과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소식재배 현장평가 및 수확연사회”를 장흥군에서 개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현장평가회는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 노동력 절감과 농사비용의 실질적인 절감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소식재배 기술을 도내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소식재배 기술은 상자당 파종량을 220~250g으로 하고, 15~20일 육묘하여 주당 본수는 6개 내외로 하여 3.3m²당 37~50주로 드물게 심는 재배법으로 이앙에 소요되는 육묘상자수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이앙 방법이다.
- 연사회에서는 소식재배 연구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천농가 사례발표, 실물표본 전시, 수확 시연 등 소식재배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진행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벼 생산비와 노동력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식재배 연사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확산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올해 태풍으로 수발아 피해를 입은 종자는 내년에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수발아에 약한 ‘신동진’, ‘새일미’ 벼 대신 쓰러짐에 강한 우리도 육성 ‘새청무’벼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선표)

🌿 노지 작물도 ‘인공지능’ 활용한 물 관리 시대

- 농촌진흥청,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국내 첫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공지능으로 작물 수분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이하 스마트 관개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 노지 작물 재배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시설재배와 달리 환경제어가 어려워 정확한 생육 정보와 환경 진단, 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 기존에는 토양 안에 설치한 센서에서 실시간 수분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설정값 이하일 때만 자동으로 물을 공급했다.
-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관개시스템」은 날씨 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체 반응 정보를 영상기술로 진단해 물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국내 최초 노지 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처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현재 또는 미래에 작물이 필요한 물의 양도 알 수 있다.
- 이 관개시스템을 복숭아와 사과 재배에 적용한 결과, 과일 무게는 14~26%, 당도는 8%, 안토시아닌 함량은 64% 늘었다.
- 작물이 받는 수분스트레스를 미리 진단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만 물을 주므로 농업용수를 25~31% 절약할 수 있다. 물 관리에 드는 노동력도 95%가량 줄일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비바람에 강한 우리 콩 ‘아람’, 기계수확도 돼요

- 농촌진흥청, 28일 제주서 콩 ‘아람’ 품종 현장 평가회 · 연사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나물용 콩 새 품종 ‘아람’ 생육 평가와 기계 수확 연사회를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의 시범단지에서 열었다.
- 또한, ‘아람’ 콩의 쓰러짐과 꼬투리달림 등 생육 평가는 예전보다 더 큰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진행되어 의미가 있다.
- 이날 현장에서는 ‘아람’ 품종을 평가하고, 가공업체와 협력해 현지에서 수확한 종자의 제품(콩나물) 품질도 평가한다.
- 이와 함께 정부 보급종으로 ‘아람’의 종자 증식과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보급을 목표로 올해 원원종 단계의 종자 생산을 시작했다.
- 지난 2년간, 농촌진흥청은 제주도내 농가에서 ‘아람’ 품종의 실증 시험과 시범단지 평가를 통해 기계수확이 쉽고 수량이 많은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지난해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아람’의 생육 특성이 ‘우수’ 이상이며, 재배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발작물개발과장은 “기존 ‘풍산나물콩’에 비해 기계수확 적응성과 수량성이 좋은 ‘아람’ 품종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나물용 콩 ‘아람’은 ‘풍산나물콩’이 기계 수확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2016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 ‘아람’ 품종은 ‘풍산나물콩’보다 수량은 20% 많고 잘 쓰러지지 않고 꼬투리가 높게 달려 기계수확에 알맞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깔짚 우사 · 퇴비사 관리 기술로 퇴비 질 높여요”

- 소 축사는 수분 잘 말리고 퇴비사는 송풍으로 부숙 촉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필요한 ‘깔짚우사 및 퇴비사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 발생량(5,101만 톤) 중 한우와 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약 41%(2,100만 톤)이다.
- 발생한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와 액비 자원화(91.2%) 처리를 거치며, 이중 대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처리(76.5%)한다.
- 깔짚우사는 안쪽의 수분이 잘 마르도록 관리해야 하고, 깔짚 살포량과 교체 주기를 지켜야 한다.
- 우사(소 축사) 지붕은 투광성 천장 재질, 개폐식 지붕 구조 등을 통해 깔짚에 남은 수분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한다.
- 톱밥 등 바닥에 알맞은 두께(한우 5cm, 젖소 10cm)로 깔아준다. 깔짚은 바닥 상태와 사육 마릿수 등 여건에 맞춰 교체한다.
- 수거된 깔짚축분은 퇴비사에서 호기성 퇴비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분뇨 1세제곱미터(m³) 당 1분에 50~200리터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송풍 설비로 퇴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깔짚우사 및 퇴비사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축산분뇨 → 자료실 → 통합자료)’에서 알아볼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강진 홍여신 대표, 전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 쾌거

- 2015년 서울에서 강진으로 귀농, 농사에 정보통신기술 접목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전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전남 강진군 홍여신 대표가 영애로운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 2019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19년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는 전남 대표로 출전하여 다른 지역 대표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SNS로 국내시장을 넘어 중국시장으로 진출”이란 주제로 대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 이번 정보화 경진대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우수사례를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와 공개발표심사를 거쳐 순위를 선정하여 한국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 이 날 대상을 수상한 홍여신 대표는 “SNS를 활용하는 데에는 그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2015년도에 서울에서 강진으로 귀농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여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 AI 예찰검사 강화

- 2020년 2월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겨울철새가 날아오기 시작한 가운데 충청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소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위험지역 사전 방역활동 및 상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조치다.
- 육용오리 농장은 입식부터 출하까지 2회 검사(폐사체출하전), 종오리 농장은 매월 2회 검사, 가금 도축장은 검사량 확대, 전통시장 판매소 및 가든형 식당은 유통되는 오리 정밀검사 및 철새 도래지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 현재까지 상시 예찰검사를 통해 7만 7천 건의 AI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가금 사육농가 및 축산 관계자 등 950명에 대한 차단방역 교육 실시, 농가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 방역관리 지도 및 오리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평가, 종오리농장 전담 공무원제 운영으로 지속적 예찰을 하고 있다.
- 또한 동물위생시험소는 야생조류 및 가금농가의 AI 의심 환축 신고에 대비해 방역대책상황실을 휴일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AI 정밀 진단기관과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을 받아 AI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았다.

*출처 : 전라남도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었고,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였다.
-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며, 조사정보 공유로 인한 중복단속 방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올해 쌀 등 농업직불금 2천298억 원

- 지난해보다 25억 늘어...11월 4~8일 시군 통해 신청계좌로 입금 -

- 전라남도는 도내 농업인 27만 1천여 명에게 올해 쌀 고정직불금을 비롯한 밭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총 2천298억 원을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보다 2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직불금 총액(1조 781억 원)의 21.3% 규모다.
- 밭농업직불금은 521억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105억 원이다. 직불금 대상 면적이 지난해보다 1천304ha 줄었으나, 지급 단가가 높아져 49억 원이 늘었다.
- 쌀 고정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ha(1만㎡)당 평균 100만 원을 13만 1천 농가에게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107만 6천 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80만 7천 원이다.
- 쌀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및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새 목표 가격이 정해져야 지급될 예정이다.
- 밭고정직불금은 전년에 비해 ha당 5만 원 인상된 평균 55만 원으로, 10만 7천 농가에 총 521억 원이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ha당 70만 2천 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52만 7천 원, 논이모작 농지는 50만 원이다.

*출처 :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 농산물 국내시장 판로 확대 특특

- 24일 GS홈쇼핑 등 20개사와 농식품경영체 42개사 1대1 매칭 -

- 2019국제농업박람회에서 전남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내수 강화를 위해 국내 유통업체 바이어와 기업 간 1대1 매칭을 통한 판로 개척의 장이 열렸다.
-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4일 박람회장에서 국내 우수 농식품 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통업체 바이어(MD) 초청, 바이어vs기업(B2B) 상담회를 진행했다.
- 바이어vs기업 상담회는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5월 상담회에서는 국내 14개 바이어, 26개 기업이 참여해 총 83건의 상담건수와 5건의 온라인판매점 입점 성과를 거뒀다.
- 이번 2차 상담회에서는 (주)GS홈쇼핑, Y마트, 우체국쇼핑 등 파급력 있는 국내 유통 바이어 20개사와 역량 있는 농식품경영체 42개사가 참여했다.
- 바이어와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상담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상담 성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 김성일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원천은 바로 내수시장 강화에 있다”며 “역량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로개척에 국제농업박람회가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서 원예농산물 구매약정

- 전남도-전남농협-농협경제지주, 1년간 1천억 규모 -

- 전라남도과 전남농협(본부장 김석기),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부장 이철)는 22일 2019국제농업박람회 현장에서 전남 원예농산물 1천억 원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 약정식은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김성일 대표이사와 박하완 전남농협 경제본부장, 이철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장을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상황실에서 진행됐다.
- 약정에 따라 전남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원예 농산물을 전남농협이 공급하고, 농협경제지주대외마케팅부가 2020년 10월 21일까지 1년간 1천억 원을 구매하게 된다.
- 전남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일 대표이사는 “구매약정은 대외적으로 전남 원예농산물의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전남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람회 현장에서 체결된 약정이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 지난 17일 개막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을 달성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국 배(梨) 명인 “잘 키운 우리 배 사랑해 주세요”

- 25일 광주서 우리 배 한마당 큰잔치... 전시·학술 발표회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국의 배 생산자들이 국내 배 산업 활성화와 새 품종을 알리기 위해 명품 배 생산을 다짐하는 ‘전국 우리 배 한마당 큰잔치’를 2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 대한민국 스타팜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배 동호회원과 최고 배 작목반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 행사는 먼저, 전국 배 농가에서 출품한 배의 식미(맛), 당도, 색, 모양 등을 현장 평가 후 명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 현장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배와 감 품종, 유전자원, 배 가공품, 최신 연구 성과 등 전시도 볼 수 있다. 국내 육성 품종인 ‘황금배’와 ‘추황배’를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마련된다.
- ‘황금배’는 껍질이 녹황색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9월 중순 수확하며 캐나다에서는 ‘사과배’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 선호도도 높다. ‘추황배’는 새콤달콤한 갈색 배로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워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배연구소장은 “이날 행사는 배 산업 관계자들의 명품 배 생산 의지를 높임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우리 배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했다.”라며 “농가에서 정성껏 생산한 배가 일상에서 꾸준히 소비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우리 맥류·잡곡으로 만든 참신한 빵·과자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2019 우리 농산물 이용 아이디어 가공제품 공모전'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주요 식량작물을 활용한 참신한 가공제품 발굴을 위해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함께 '2019 우리농산물 이용 아이디어 가공제품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연다.
- 이번 공모전은 29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열리며, 한국제과기능장협회에 소속된 회원 가운데 각 지회의 추천을 받은 30명이 참가한다.
- 이날 참가자들은 국산 품종 밀·보리·콩·팥·고구마 등을 활용해 미리 만들어온 빵과 과자류를 전시한다.
- 심사는 한국제과기능장협회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제과·제빵 전문가가 담당하며 우리 농산물 배합비율, 맛, 대중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동네빵집 등 중소 제과점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5월(사)대한제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같은 해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과 연계해 (사)대한제과협회와 함께 '우리 쌀빵 경진대회'를 열었다.
- 올해는 11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쌀빵 경진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사)대한제과협회에 소속된 제과·제빵 기술자들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품종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나주시, 화상벌레 이렇게 대비 하세요

- 시 보건소, 화상벌레 주의사항 홍보, 방역활동 강화 -

- 신체 접촉 주의 ... 화상 비슷한 통증, 수포 유발 -

- 나주시는 최근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 출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 화상벌레는 평균 7mm 크기로, 개미와 유사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있으며 주로 늦여름 논·밭, 습지, 천변, 부패한 식물등에서 서식한다.
- 특히 신체와 접촉할 시 ‘페데린’(pederin)이란 강한 독성 물질을 일으켜 피부에 화상을 입은 듯 통증을 유발하고, 발적과 수포를 동반해 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화상벌레에 물렸거나 접촉했을 때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한다.
- 이후, 코티졸계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냉습포를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효과를 볼 수 있다.
- 또한 수일이 지나면 상처 부위에 가피가 형성돼, 2주 후 자연 치유된다. 다만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 현재 화상벌레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가정용 에어로졸(살충제)로도 퇴치·살충효과가 있으며 밤에 불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어 방충망 등을 설치해 벌레의 접근을 사전차단해야 한다.
- 보건소는 화상벌레 출몰 신고가 접수된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기존 방역 작업과 연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는 강한 불빛에 이끌려 실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 야간시간 대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처는 2주 정도 이후 자연 치유되지만, 부위가 넓거나 갈수록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에 내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나주시



담양군,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시식회

- 한우 부위별 20~60일 건식숙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23일 창평시장 내 위치한 창평한우암소 고깃집에서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시식회를 실시했다.
- 이날 시식회는 담양군수를 비롯한 한우 사육농가, 축산관련 담당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수현연구관이 한우 숙성기술을 활용한 저지방부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한우고기 숙성방법은 방식에 따라 크게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숙성은 숙성 과정에서 수분 증발로 감량이 발생하나 연도 개선과 함께 맛과 향미가 진하며 조직감이 우수하며 습식숙성(진공포장 숙성)은 저장 중 식육의 산화와 수분증발 방지, 산소 제거를 통해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고 수분증발을 억제하며 연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 최형식 담양군수는 “한우고기 건조 숙성기술을 이용하면 질겨서 양념용이나 국거리·찌개용으로 쓰였던 한우 저지방부위의 소비자 선호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양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숙성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담양군, 와우딸기작목회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최우수단지 선정

- 죽향, 메리퀸 등 담양 육성 딸기 품종의 안정적 현장 확산에 기여한 공 인정받아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최근 열린 2019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심사에서 봉산면 와우리의 와우딸기작목회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 상은 국내육성품종 원예작물의 안정적 현장 확산에 기여한 재배단지에 주는 상으로 와우딸기작목회는 국내 10개의 단지가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담양 딸기 농업의 대표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와우딸기작목회는 1982년에 설립된 단지로 현재 회원 71명, 딸기 재배면적은 30.1ha이다. 주요 재배 품종은 죽향, 메리퀸, 설향 등이며 이중 죽향과 메리퀸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 와우딸기작목회는 일본의 딸기 품종인 육보를 재배하다 2013년부터 담양육성 품종인 죽향 딸기가 보급되면서 품종전환을 시작했다.
- 죽향은 육보와 매향을 교배해 육성한 품종으로, 재배 및 관리방법은 육보와 비슷하지만, 육보보다 빠른 꽃눈분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죽향의 장점을 잘 활용한 와우딸기작목회는 매년 딸기 시장에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는 육보를 재배하던 작목회원들이 100% 품종전환을 하여 죽향을 재배하고 있다.

*출처 : 담양군



담양군,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 건립 ‘박차’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국비예산 25억 원 확보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및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25억 원(국비 12.5억 원, 군비 12.5억 원)을 확보해 2020년까지 660㎡ 규모의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을 건립한다.
-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140~150톤의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기존의 미생물 배양시설로는 담양군의 전체 축사 악취의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신규로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을 건립해 악취 악취저감 미생물 과 농업용미생물을 연간 250~300톤 공급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와 함께 악취저감 미생물 균주 개발을 시험·연구할 계획이다.
- 현재 미생물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악취저감, 난분해성 유기물 가용화, 선충방제, 육질개선, 사료효율 증대 등의 효과가 검증되어 많은 농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이병창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 건립을 통해 악취 없는 담양군 생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행복생활권 보장과 아울러 농축산업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고흥군, 롯데슈퍼와 농수축산물 공동 유통마케팅 협약

- 100억여 원 구매약정, 고흥산 농수축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성과 -

- 고흥군(군수 송귀근)과 롯데슈퍼는 고흥산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식품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흥산 농수축산물을 연간 100억 여원 이상 구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고흥군은 농수축산물 판로확대가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도록 상품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롯데슈퍼 점포에 고흥 농수축산물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제철 농수축산물 특판전을 수시로 개최하며, 온라인 쇼핑몰 ‘롯데프레시’에 고흥 농수축산물이 입점토록 하는 등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송귀근 군수는 “금년도 양파와 마늘값 하락에 따라 고흥군 농민이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다. 앞으로 고흥 농수축산물이 롯데슈퍼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고흥산 농수축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고흥 농수축산물이 롯데 슈퍼와 같은 대형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고흥의 농어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돼 군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고흥군



화순군, 농민수당 본격 시행...올해 30만 원 지급

- 군은 18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와 방법 등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지급대상자에게 10월부터 12월분까지(3개월분)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농업인은 오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비 서류와 함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11월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 군은 접수 마감 후 농민수당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살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화순군 소재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경영주)이다.
- 다만, 공동경영주이거나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명에게만 지급된다. 중복·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서다.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이후에도 지급 중지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월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중지된다.

- 구충곤 군수 “농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책 펼치겠다” -

- 화순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한 이후 1년여 만에 농민수당제를 시행하게 됐다.
- 농민수당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농업 분야 대표 공약으로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다. 구 군수는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군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서둘렀지만,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지난 8일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 18일 농민수당심의위 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구충곤 군수는 “하루라도 빨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싶었지만,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면서 다소 늦어졌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가이드라인 등 제약조건 때문에 올해 우선 3개월분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어 구 군수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추가적인)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애초 화순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농민수당 연 1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협의회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화순군농민회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 한편, 전남도는 지난 17일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화순군은 전남도 조례와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 금액 등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출처 : 화순군



강진군, 수확 후 남은 볏짚 토양으로 환원 당부!

- 희망 물량 전량 매입...농가 손실 최소화 기대 -

- 강진군이 고품질 강진 쌀 생산을 위해 벼 수확 후 남은 볏짚을 토양으로 환원시켜 지력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군은 최근 벼를 수확 후 남은 볏짚을 전부 불태우거나 조사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거름이 되어야 할 볏짚이 토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토양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화학비료 살포에만 의지하다보니 토양구조 변화와 토양 산성화 등 지력이 약화돼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고 벼 도복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볏짚 환원 시 볏짚 600kg에는 요소 9kg, 염화加里 34kg, 규산 252kg, 유기물 174kg 등 토양에 도움 되는 성분이 많아 도복을 예방하고 등숙률과 완전비율을 높여주는 등 건강한 벼를 생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성분을 화학비료 구입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13~16만원의 환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 겨우내 논에 볏짚을 덮어두면 빗물과 관개수에 양분이 씻겨 나가는 것을 막을수 있고 토양 통기성과 배수성을 개선돼 토양 물리적 환경 변화 등 농업환경을 보전해 지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출처 : 강진군



강진군, 맥류 적기파종으로 월동 준비 하세요!

- 강진군이 맥류 파종기를 맞아 농민들에게 건전한 종자 사용과 적기 파종 및 적정 파종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올해 벼 수확기는 잦은 강우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맥류 파종 또한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진 지역 맥류 파종 적기는 오는 25일에서 10월 말까지이다. 파종이 늦으면 추위에 가장 약한 시기에 월동하게 되고, 너무 일찍 파종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다. 따라서 월동 전에 잎이 5~6매 나올 수 있도록 늦어도 내달 상순까지는 파종해야 한다.
- 특히, 맥류는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로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월동 후 2~3월에 토양 솟구침으로 인한 동해피해, 겨울철 비나 눈이 온 후 동해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배수골을 깊게 하는 등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맥류 파종 이후 습해와 동해예방 그리고 생육후기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는 흙덮기 작업이 필요하다. 흙덮기 작업은 씨뿌림 직후 흙을 덮어주거나 퇴비, 볏짚 등 유기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3cm 이내 두께가 되도록 덮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생육과 안전 월동에 도움이 된다.
-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맥류 파종 시기에 맞춰 다음달 중순까지를 중점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맥류 붉은곰팡이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종자소독, 적기 파종 및 적정 파종량, 배수관리 등의 초기관리에 대해 적극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출처 : 강진군



해남군, “맛있는 김장의 비결은 명품 해남배추”

- 이마트에브리데이 절임배추 판촉행사 가져 -

-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군이 명품 해남배추 판촉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군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전국 242개 매장에서 해남 절임배추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은 오는 11월 6일까지이며, 예약 당일 약정된 금액으로 원하는 날짜에 구입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연이은 태풍피해로 배추 생육이 늦어진 상태로 가장 맛있는 배추로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배추가 충분히 자란 11월 15일 이후 김장을 담가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이다.
-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18~19일 이마트 에브리데이 부천SF점에서 해남배추 소비촉진을 위한 절임배추 판촉 행사를 열었다. 김치 담그기 및 시식 행사와 함께 해남배추 사전예약 판매 홍보를 실시했다.
-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으로 타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특히 김장문화가 소규모로 바뀌고 간략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
- 해남 절임배추는 결구가 잘된 해남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달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단감 신품종 현장 설명회 가져

- 무안군(군수 김산)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가을을 알리는 대표 과일인 단감 수확이 한창이다.
- 무안군 단감 연구회(회장 진성원)는 본격적인 단감 수확철을 맞아 지난 17일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소재 진일장(단감 마이스터) 과수원에서 회원농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감 신품종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 현장 설명회 후 단감 신품종(조안, 원추, 태추, 로망) 시식회도 진행하였는데 기존 품종인 부유에 비해 과밀도가 높아 아삭하며 단맛(17 ~ 18브릭스) 또한 월등해 참석자 대부분이 배 보다 더 단맛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 진일장 교수(76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단감 마이스터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전국 각지 농업기술센터 및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렇듯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단감의 명성을 높인 데에는 단감 마이스터 진일장 교수의 숨은 노력이 엿보인다.
- 무안군 또한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등 단감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무안군



장성군, '황금사과', 첫 수확부터 관심 집중

- 장성군, 18일 '황금사과 육성사업 현장평가회' 개최 -

-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 지녀... 장성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 -

- 장성군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장성 황금사과 육성사업 프로젝트'가 3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 군은 18일 삼서면 금산리 소재 웰빙나눔농원에서 '황금사과 육성사업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첫 수확한 황금사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 자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언론인,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 황금사과는 새콤달콤한 맛을 지녔으며, 과즙이 많고 식감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한다. 과중은 350~400g 가량으로 깍은 채 오래 두어도 갈변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6개월까지 저온 저장이 가능할 정도로 저장성도 뛰어나다. 밀식재배가 필요해 묘목구입 비용이 후지 품종에 비해 3배 가량 비싸지만, 착색을 위한 반사필름 설치나 열매 돌리기, 잎 따기 작업 등이 필요 없어 생산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다.
- 또 수확 시기가 10월 상·중순으로, 홍로와 후지 사이에 출하돼 틈새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 장성 황금사과 육성사업 프로젝트는 2017년 컬러푸르트(color fruit) 사업의 일환으로 황금사과 묘목 2,500주를 지원하며 시작되었다.

- 지난해에는 황금사과 과원을 시범 조성하고, 황금사과 확대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9년부터 황금사과 확대조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10월 첫 수확을 맞이했다.
- 이날 평가회는 육성경과 보고와 재배농가 사례 발표, 전시품 관람 및 시식 순서로 진행됐다. 평가회에 참여한 바이어는 “당도와 과즙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며 “사과는 붉은 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는 등 좋은 마케팅 포인트도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 현재 장성군에 조성된 황금사과의 재배면적은 6.8ha로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군은 추후 묘목갱신 위주로 지원해 2023년까지 40ha 규모로 재배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남부지역의 경쟁력 있는 품종인 황금사과를 옐로우시티 장성의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장성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장성군은 컬러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사과, 단감 등 기존 과일에 새로운 컬러마케팅을 적용하고 황금사과를 비롯해 샤인머스켓, 아열대 과수 등 4개 품목의 재배면적을 총 120ha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초에는 레드향을 처음으로 수확해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출처 : 장성군



장성군, 약용작물 소득화 ‘본격 추진’

- 장성군은 지난 17일 장성군청에서 한방제조·유통 및 연구개발기업 (주)씨와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장성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 장성군은 농업인들이 ‘지황’ 등 경쟁력 있는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지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주)씨와이는 지역 내 생산된 약용작물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 (주)씨와이는 장성 동화면에 소재한 한약재 제조·유통 및 연구개발기업이다. 군은 (주)씨와이가 생산하는 경옥고의 주원료인 ‘지황’을 납품하기 위해 ‘약초안정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 현재 장성에는 11농가가 1.1ha의 면적에 지황을 재배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황의 재배면적을 2021년까지 5ha까지 확대하고, 이외에도 한약재의 원료로 쓰이는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약용작물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우수 약용작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한약재 제조 기업은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원료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니겠냐”며 “지황이 장성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장성군



완도군, 해풍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참다래 수확

- 당도 13~14 브릭스, 올해 예상 생산량 130톤 -

-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해풍을 맞고 완도자연그대로 참다래를 10월 21일부터 본격 수확, 판매한다.
- 새콤달콤 완도자연그대로 참다래는 식이섬유소가 바나나의 5배나 되고 비타민C와 비타민E 등도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특히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적은데 당도는 13~14 브릭스(Brix)이며, 후숙 기간을 거치면 15브릭스 정도가 된다.
- 완도군의 참다래 재배 농가는 30농가(11ha)로 올해 예상 수확량은 130톤 정도이다.
- 해금(골드키위)은 결실량이 많아 20~30톤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해금(골드키위)은 10월 말, 그린키위는 11월 10일 정도까지 수확할 예정이다.
- 좋은 참다래를 고르는 방법은 껍질이 윤기 있는 갈색을 띠고, 손가락 끝으로 눌렀을 때 잘 익은 복숭아처럼 약간 말랑말랑하며, 모양이 고르게 생긴 것이 좋다.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다래 품질 향상을 위해 참다래 꽃가루은행 운영과 참다래 품종 갱신 지원 사업, 참다래 신규 과원 조성 덕시설 시범 등을 통해 완도자연그대로 고품질 참다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완도군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0. 2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대두 선물가격, 수확이 가속화되면서 하락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미-중 무역 협상으로 밀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에 앞서 환매수가 발생하며 금요일 강세를 보였다. 곡물 거래상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과 동일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요가 둔화되고 미국의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요일에는 평평하게 마감됐다. 일반적으로 유리한 미국 수확 날씨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4% 하락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주 초 면세 수입 할당량을 제시한 이후 구매가 무역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금요일 미국의 대두 선물은 미국의 수확이 가속화되고 중국으로부터의 실망스러운 수요로 인해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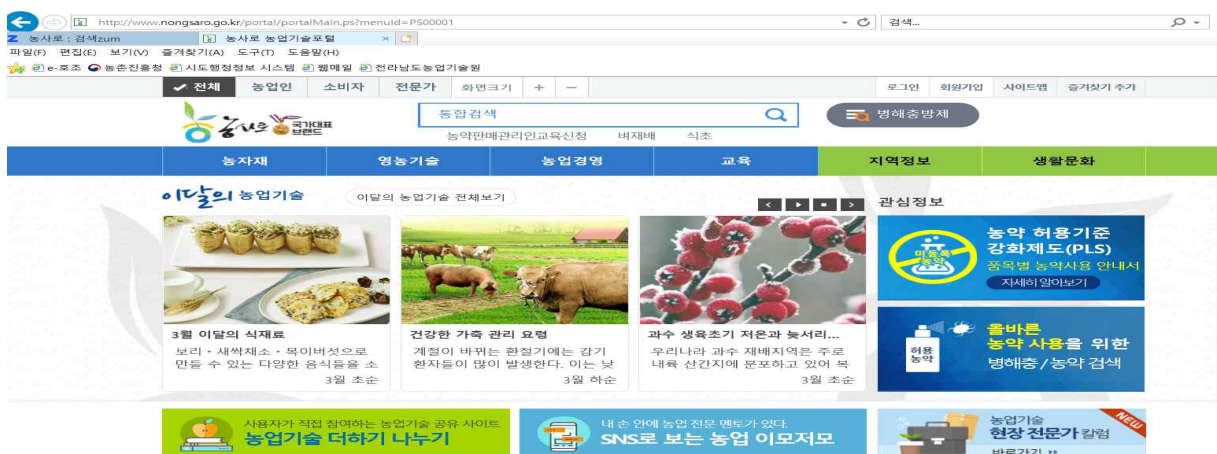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www.kamis.or.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KAMIS농산물 유통정보에서는 가격정보, 동향/전망, 식재료아카이브, 알뜰장보기, 유통실태, 자료실, 고객센터로 분류되어 있으며,
- 가격정보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도·소매가격, 가격정보 조사요령, 부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도매가격은 품목·기간·부류별로 기간 > 지역 > 부류 > 품목 > 품종 > 등급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소매가격은 품목·기간·부류·시장·친환경농산물별로 기간 > 부류 > 품목 > 품종 > 등급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정보는 주요 농산물 일일 도매가격, 산지가격, 경락가격, 가격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AMI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like '가격정보', '동향/전망', '식재료 아카이브', '알뜰장보기', '유통실태', '자료실', and '고객센터'.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중심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Below this, there are two tables: '도매 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and '소매 가격'. Each table has columns for '품목', '단위', '가격(03.05)', '동향률', '전일', '1개월전', and '1년전'. The '도매 가격' table lists items like '쌀/일반계', '참외/일반계', '콩/해태(국산)', '밤/적두(국산)', and '녹두/국산'. The '소매 가격' table lists items like '참외/일반계', '콩/해태(국산)', '밤/적두(국산)', and '녹두/국산'. Below the tables, there are sections for '주간 알뜰장보기' and '식재료 아카이브'.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농식품소비트렌드, 경영기술,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관측정보, 농식품산업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축산물가격은 실시간가격, 기관조사가격, 해외농산물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시간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도매시장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기관조사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가락시장, 강서시장, 품목별가격, 지역별가격, 유통센터별가격 중 기준일시점으로 부류 > 품목 > 품종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해외농산물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부류 > 품목 > 품종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 (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부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버섯, 관측속보별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가격동향, 출하전망, 가격전망, 정식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은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국제곡물, 버섯으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최근 3개월 간의 거래가격 및 반입량 추세(가락도매시장)를 그래프와 가락동 도매시장 최근 10일간 도매가격 및 반입량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 도매가격동향은 일자를 선택하여 품목별로 가격과 등락률(%)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REI Agriculture Observation Department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부소개, and 농업전망. The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01 농업관측정보**: A section for general information with a search bar and filters for year and month.
- 02 품목동향**: A section for commodity trends, featuring a grid of charts and reports for various categories like '과채' (Fruit & Vegetables) and '양념채소' (Seasoning Vegetables).
- 03 농업전망**: A section for agricultural outlook.
- 인포그래픽**: A section for infographics.
- 도매가격동향**: A section for wholesale price trends, including a table for '2019-03-09'.

The '도매가격동향' table shows the following data:

품목	가격		전일대비 등락률 (%)
	전일	당일	
양근	18,423	18,231	↓ 1.0
양파	644	662	↑ 2.8
대파(일반)	1,001	794	↓ 20.7
쪽파	17,604	18,618	↑ 5.8
느타리버섯	4,689	4,693	↑ 0.1



청렴한세상 - 자신을 비추는 거울(1)

#1. 소동



#2. 회상



#3. 이번만...



주간 257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56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